

# 여성 팀 소감

## -팀장으로서의 마지막 춤-

14학번 김소현

입학 후 3년이란 시간 동안 철학과에 재학하면서 나에게겐 학과 축제에 참여할 3번의 기회가 있었고 미네르바의 향연을 준비할 때마다 여러 가지 분과가 있었음에도 나는 항상 춤을 선택하곤 했다. 올해까지 축제 때 춤을 춰 오면서 힘들고 불편한 점도 많았기에 '괜히 하겠다고 했나'하는 후회가 밀려오는 순간도 많았지만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춤을 좋아하기도 했다. 나는 춤을 좋아하지만 잘 추는 사람은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이라고 생각한다.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선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여자 춤 팀을 맡게 된 것이었다. 그래서 끝까지 모두를 책임지며 끌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컸고 다른 이유는 나에게겐 올해 축제가 마지막 축제이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은 무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. 그래서 선곡을 할 때에도 많은 곡들을 찾아보면서 춤을 추는 사람도, 춤을 보는 사람도 지루하지 않을 곡을 찾아냈는데 그 곡이 카라의 '맘마미야'라는 곡이었다. 그렇게 연습을 진행하는데 생각보다 동작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그 동작을 서로서로가 도와주며 모두가 완성하는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축제의 날이 다가오는 동안 시험 기간도 겹쳐있어 많은 시간을 연습하지 못했음에도 축제 당일 무대에

## ■ 춤: 여성 팀 소감

올라가서 각자 열심히 개인 연습을 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서로의 호흡이 중요한 부분에서는 틈틈이 서로를 보고 대형을 맞춰가며 눈에 띄는 큰 실수 없이 한 곡을 마쳤을 때 너무너무 기뻐고 만족스러웠다. 하지만 너무도 많은 땀을 흘리면서 만들어낸 무대 위에서 내려왔을 때 '이제 진짜 끝이구나' 하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과 허무한 마음이 들었지만 사람들에게서 정말 잘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 기쁨이 잠시나마 아쉽고 허무한 마음을 잊게 했다.

각자의 위치에서 미네르바의 향연을 빛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 멋있었고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.